

名前:

인터넷은 확실히 정보를 빠르게 전달
하고 쉽게 볼 수 있게 하였다. 인터넷
의 발달로 인해 e-book 이라던지
개인 신문 사이트도 생겨났다. 그렇다고
해서 신문이나 잡지가 필요 없다는 것은
성립할 수 없다.
먼저, 인터넷 신문이나 잡지는 모니터
로 볼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. 모니터
로 보는 것은 정보를 빨리 볼 수 있
지만, 만지는 것을 할 수 없다. 글자
하나 하나를 체크하면서 읽는 것을 할
수 없고 내가 읽고 싶은 장소에서 보
는 것도 할 수 없다. 또한, 모니터는
종이로 만든 책보다 시력이나 체적이
더 쓰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쉽게 느
낀다.
정보의 정확성에도 문제가 있다. 책이
나 신문, 즉 종이로 만든 것은 많은
사람들이 쓰거나 고치거나 하는 과정이
들어간다. 예를 들어 몇몇은 문장이 떠오

르지 않을 때에는 몇 일이나 생각해 번
다. 그리고 기한까지 확실한 것을 만들
지 않으면 안 된다. 하지만 인터넷 글은
개인이 쓰고 싶은 것을 쓰면 되고, 유
명한 사이트라도 배급이 생명이기 때문
에 종이로 만든 것보다 정확성이 준다.
마지막으로 보관성이 아직 정확하지
않다. 컴퓨터가 보급된 이래, 아직 백년
도 지나지 않았다. 그런데도 사람은 글
을 모두 인터넷에 옮기려고 한다. 인터
넷의 보관성을 알기 위해서는 좀 더
시간이 필요하다.
나는 인터넷이 쓸모없다고 할하는 것
이 아니다. 확실히 인터넷의 글은 빠르
고 손쉽게 볼 수 있다. 하지만 나는
글이라고 하는 것은, 정보라고 하는 것
은, 좀 더 인간의 손으로 느껴가면서
읽는 것이 정석이라고 생각한다.